

여러분의 몫입니다.

필요한 자원과 행동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리마 보위(Leymah Gbowee)와 다른 세 명의 여성들이 201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그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국 사무실이 있는 뉴욕시의 인터처치센터(Interchurch Center)에 모여 가을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던 여성국의 이사들은 수상자가 발표되던 바로 그 날, 인터처치센터에서 보위 여사의 강연을 듣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최근에 뉴욕시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처치센터포유엔(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건물에서 있었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관련 모임에서 그녀를 본 이후로, 그녀가 말했던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가 “프레이 더 데블 백 투 헬(Pray the Devil Back to Hell)”이라는 라이베리아 여성들의 평화운동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에 나온 보위 여사 그리고 평화상 공동 수상자 중 한 사람인 엘런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라이베리아 대통령을 보셔서 알고 계시듯이, 보위 여사는 매우 훌륭한 연설가입니다. 제가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녀는 “어렵고 힘든” 말들을 “쉽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멋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여성들은 왜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티셔츠를 보내는 일을 계획하나요?” 경제개발 전문가들은 아프리카에 필요한 것은 아프리카의 농작물과 직물, 고용 및 자립능력의 배양이지, 지역시장을 약화시키는 자선행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자원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도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위 여사는 미국을 여행하면서, 미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선이 특히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나은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성과 어린이와 가족들의 굶주림, 혈벗음,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우리의 선교기관들 및 장학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 회원들이 지역 선교를 지원하는 수많은 방법들 또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필요들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의료보험을 잃은 사람들,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사람들-이러한 사람들은 직장, 직업 훈련, 식량 보조, 교육 지원 및 그외의 다양한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빈곤선 또는 빈곤선 이하에서 비참한 삶을 사는 가정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위 여사는 “제가 보기에 아프리카에는 행동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반면에 미국에는 자원은 있지만 행동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여러분, 그녀가 옳을 지도 모릅니다. 미국 시스템의 많은 측면들이 이 나라를 더 나은, 더욱 지속가능한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들은 빈곤의 굴레에 빠져들었으며, 오늘날 새로 빈곤하게 된 가정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실천하는 믿음 · 소망 · 사랑